



세 대 간 의 마 음 을 잇 다
천개의 스토리
천권의 자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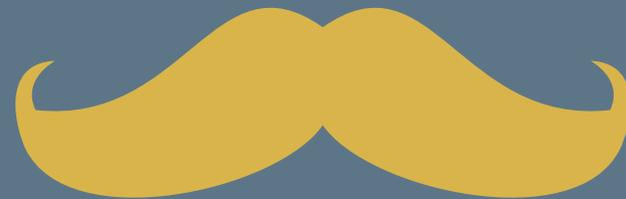
별 탈 없 이
담 담 하 게

채은경 자서전

세 대 간 의 마 음 을 잇 다
천개의 스토리
천권의 자서전

별 탈 없이 담담하게

채은경 자서전





세 대 간 의 마 음 을 잇 다

천개의 스토리
천권의 자서전

별 탈 없 이
담담 하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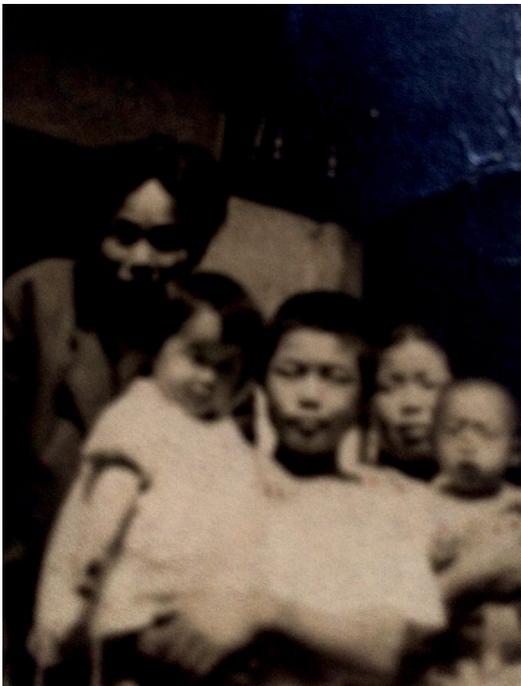


채은경 자서전

태어날 무렵

우리 집안은

아버지가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비교적 어렵지 않은 집안이었어요. 위로 큰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큰오빠와는 14살 차이가 났어요. 큰오빠는 제가 12살에 장가를 갔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렸을 때 큰오빠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같이 있던 시간도 많지 않았고요. 그나마 작은오빠와는 잘 어울려 놀았었는데 큰오빠와는 그런 추억이 많이 없어 아쉬울 뿐이에요. 그래도 아버지만큼이나 항상 든든했던 우리 집의 버팀목이었어요.



+

한 사람의 아버지가 백 사람의 선생보다 낫다.

어린시절

부모님에 대한 기억

아버지는 인천 채씨 집안의 4형제 중에 막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고모 없이 큰아버지들만 세 분이 계셨지요. 아버지가 넷이라 참 든든했어요. 어머니는 안동 권씨 5남매 중에 셋째셨어요. 어머니는 말이 못지않게 책임감이 강한 분이셨지요.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말수가 적은 편이셨고 심지어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서로를 많이 존중하셨던 거 같아요. 본받을 게 많은 분들이었죠.

그 시절

부모님과 어른들께서는

아버지는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인 셈이었어요. 전기회사인데 개인기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늘 이사를 다녀야 했지만 어디로 이사를 가든 어머니는 항상 텃밭을 가꾸고 닭을 키우셨어요. 크게 농사를 짓는 건 아니었지만 호박이며, 감자며 철마다 무언가를 심고 거두곤 하셨죠. 벼를 놓고 벼를 짜시던 모습도 기억이 나요.

어린 시절에 어른들의 일에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이웃들은 거의 다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농번기에는 부모님 농사일을 돕느라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어린시절 살던

동네는

저의 원래 고향은 경상북도 문경 산양, 그곳은 본가였어요. 태어난 곳은 예천 감천면에 있는 석박티라 불리는 동네였어요. 어머니께서 늘 석박티라고 부르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석박티에 살 때 태어났지만 아쉽게도 그 곳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셔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사를 다녔거든요. 태어난 후에도 바로 이사를 갔어요.

나중에 아버지를 따라서 석박티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마을에는 '석송령'이라 불리는 아주 큰 나무가 있었는데 키가 10m나 되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내가 태어난 동네에 멋진 나무가 있다는 게 왠지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나요.

+

아무리 초라해도 내 집과 같은 곳은 없다.

형제자매가

태어났을 때

호적상 쌍둥이로 등록된 작은오빠와는 사실 6개월 차이 나는 배다른 남매였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일이 많았는데 오빠를 우리 집 호적에 올리면서 나와 같이 1945년 6월 8일에 올리신 거 같더라고요. 갑자기 생긴 가족이지만 작은오빠와는 어린 시절부터 한 가족처럼 함께 자랐고 커왔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오빠와 달리 나나 여동생과 많이 놀아줘서 친하게 잘 따랐죠. 하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였으니 무의식중에라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에게는 말 못 할 아픔이 있었겠죠. 가끔 오빠 얼굴을 들여다보면 왠지 모를 외로움이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오빠를 더 따랐었나 봐요. 오빠가 슬프지 않도록 계속 붙잡고 놀고 싶었어요.